



### 11월의 기도

1. 총재 조용기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저희 DCEM이 더욱 선교활동에 힘을 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DCEM을 통하여 진정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2.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십시오.
3. 해외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신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김승권, 노승한, 정경자, 윤경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2)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무려 40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낸 해수는 292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왜 이렇게 고난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영농 기술이 발전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과 살상이 없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없는 자유가 보장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2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청소년들 중의 적지 않은 수가 탈선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참된 평화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제도와 사회조직이 아무리 잘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운영하는 인간의 정신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추구하고 물질을 우상화하는 정신이 개인을 점령하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을 점령하면 가정이 망하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과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살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정신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한, 그들의 삶에는 거센 풍랑이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거친 풍파에 부딪쳐 파선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나라와 이웃과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배를 운행하고 있는 자신의 정신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고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잘됨 이후야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 DCEM 2004년 해외성회

### <일본 오사카 성회>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 예배전경



▲설교하는 조용기 목사와 통역을 맡은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 개최 찬양

일본의 중심 상업도시 오사카에서 성황리 개최되었던 2004년 지저스 페스티벌은 3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운집해 일본 복음화와 조용기 목사 해외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간사이 지역 유례 없는 최대 개신교집회라는 기록을 남긴 ‘2004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에 조용기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창조적인 생각’, ‘변화된 자화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긍정적인 언어’를 갖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2004년 12월 19일 쿠레오 오사카 중앙 공회당에서 성대하게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은 예배 시작 수시간



▲성회에 참석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전부터 몰려든 성도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DCEM이 주최하고 종교법인 일본폴가스펠 교단과 일본리바이벌동맹(NRA), 복음선교 협력회, 오사카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오사카 지저스 페스티벌’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사카순복음교회를 비롯해 도쿄, 나고야, 고베, 오야마, 후나바시, 마쓰도, 후끼야게, 야마토, 마쓰모토, 마가노, 후지, 누마즈순복음교회 등 총 30여개의 일본 내 개신교 교회 성도들이 참석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회는 주최측의 발 빠른 협조와 안내로 조금의 불편함 없이 질서 있게 치러졌다. 특히 2004년 지저스 페스티벌은 전년도 성회보다 더 많은 일본 내 기독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해 자발적으로 성회에 참석한 것이 특징이었다. 재일 한 국인보다 더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성회에 참석해 간사이 지역 최대 개신교 집회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통역은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가 맡았다. 조용기 목사는 “예수님의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자화상이 달라져야 하고 주님을 믿고 언제나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은 지식의 부유함도 아니며, 수양과 도덕적 품성을 지님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설교가 끝나고 연이어 진행된 결신의 시간에는 성회에 처음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중 몇몇은 소리내어 목 놓아 울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고백하기도 했다.

일본 선교를 위하여 선포된 일본 일천만 구령을 본격적으로 성령의 불로 지피우게 한 것은 매해 개최했던 ‘지저스 페스티벌’이었다. ‘지저스 페스티벌’은 일본이 ‘신도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점차 변모하도록 이끌어 갔던 성령운동이 되었다.

# 전지고 채우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 1.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샤크’인데 이것은 ‘꼭 달라붙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속에서나, 물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가지 말고 바싹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하샤크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달라붙은 여러분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2.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또 채우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뜻하는 그릇은 소망과 꿈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채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바로 꿈과 소원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이유가 백성이 꿈이 없으면 그릇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는데 꿈과 소원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것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 3.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조지 물리 목사님은 2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먹고, 입고, 잠재우고, 교육시키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으나, 한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고아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작은 정원을 거닐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묵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껏 고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러니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장차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

급해주실 것이다.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을 떠올리자 내 영혼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약 1분 뒤에 편지 한 통이 당도했는데, 봉투에는 20파운드 지폐가 들어 있었다. 그 돈은 당시 필요로 하던 금액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문제가 없습니다.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어디 그렇게 많이 모여올 수 있습니까? 만나가 매일마다 40년 동안 삼시 삼 때 배부르게 먹도록 내려왔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광야 바위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정말 참 놀라운 영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망과 꿈이 그릇인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다고 하고 부자도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학벌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 나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을 종종합니다.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되면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퍼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꿈을 ‘하샤크’하고 확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 등을 확 끌어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을 꾸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잘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 마태복음 7

물 세례와 불 세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 3:11)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에서 물로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시키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신’은 신발끈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외출했다가 돌아온 주인의 신발끈을 종이 풀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결국 자신이 예수님의 종의 자격도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심판자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 있는 구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따져볼 때 예수님의 신발 조차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실 수 있으니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 시대에는 율법으로 심판받지만,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받습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을 들지 못할 정도인데 우리는 그 근처에도 못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큰 증거가 되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고,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니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 때만 하더라도 어



림 없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우리가 어리광부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찬송가 186장)

작 마당을 정하게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쭈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 3:12)

이 세상은 주님의 추수 들판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서 알곡을 만들어 하늘나라 곳간에 들이십니다. 알곡은 교회에 모이고 쭈정이는 전부 세상에 있다가 심판날 교회는 다 천국으로 들어가고 세상은 불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곳간에 들어와있는 알곡인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곳간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쭈정이는 심판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불로 소금치듯하는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여 죄악을 태우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추수 들판

주님의 추수 들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

